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하 영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François Poulenc의 『Deux Poèmes
de Louis Aragon(두 개의 시)』 에
관한 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한 주 희

François Poulenc의 『Deux Poèmes
de Louis Aragon(두 개의 시)』 에
관한 연구

김 하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한 주 희

인 준 서

한주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프랑스의 20세기 작곡가인 프란시스 뿔랑(François Poulenc, 1899-1963)이 작곡한 『두 개의 시 (Deux Poèmes de Louis Aragon)』를 연구한 것이다.

『두 개의 시』는 뿔랑의 3시기 작품으로, 이 작품은 “쎬(C)”와 “화려한잔치(Fêtes galantes)”의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뿔랑은 프랑스 시인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의 초현실주의 시를 자신의 곡에 세팅하였고, 이 작품은 전쟁 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전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뿔랑은 조성, 화음, 형식, 빠르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시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본 논문은 『두 개의 시』에 사용된 시와 배경, 시인에 대해 연구와 작곡가 뿔랑의 생애와 그의 가곡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아라공의 시가 뿔랑의 음악으로 재탄생 되는 과정을 분석과 함께 연구할 것이다. 또한, 뿔랑과 아라공의 시대를 대변하는 신고전주의와 초현실주의의 특징과 『두 개의 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것이다.

본 논문이 연주자들의 이해와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프란시스 빨랑의 음악	2
1) 프란시스 빨랑의 생애	2
2) 프란시스 빨랑과 프랑스 6인조(Les six)	6
3) 프란시스 빨랑의 가곡의 특징과 시기별 분류	10
2. 루이 아라공의 시	15
1) 루이 아라공의 생애	15
2) 루이 아라공 시의 특징	17
3. 20세기 음악의 전반적 흐름을 통해 본 이론적 배경	20
1) 신고전주의	20
2) 초현실주의	22
4. 프란시스 빨랑의 「Deux Poèmes de Louis Aragon」 분석	23
1) C	24
2) Fêtes galantes	35
III. 결론	50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1> 제 1곡의 “C” 구조	26
<표2> 제 1곡의 “C” 조성	26
<표3> 제 2곡의 “Fêtes galantes” 구조	37

악보목차

<악보-1> 제 1곡 C. 마디 1-4	27
<악보-2> 제 1곡 C, 마디 5-12	28
<악보-3> 제 1곡 C, 마디 12-20	29
<악보-4> 제 1곡 C, 마디 20-24	30
<악보-5> 제 1곡 C, 마디 25-28	31
<악보-6> 제 1곡 C, 마디 29-32	32
<악보-7> 제 1곡 C, 마디 33-41	33
<악보-8>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1-5	38
<악보-9>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6-13	40
<악보-10>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14-19	43
<악보-11>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20-23	44
<악보-12>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24-26	45
<악보-13>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27-30	46
<악보-14>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31-34	48

I. 서론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작곡가 프란시스 뿔랑(François Poulenc, 1899-1963)은 과거의 음악양식과 20세기 현대 음악기법을 융합시켜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가지는 프랑스의 현대음악 작곡가이다. 그는 관현악, 피아노, 합창곡, 오페라, 가곡, 실내악곡, 발레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작곡하였으나 그의 대표작품들은 대부분 성악곡이며, 그 중 예술 가곡은 그의 재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르라 알려진다. 문학적 자극은 작품 창작에 가장 큰 영감이었기 때문이다. 뿔랑은 총 146곡의 예술 가곡을 작곡하였으며 대부분이 모음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깊고 심오한 곡부터 동요와도 같은 단순한 음악까지 작품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¹⁾

본 논문에서 다룰 뿔랑의 작품 『두 개의 시 (Deux Poèmes de Louis Aragon)』는 프랑스 초현실주의 시인인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의 시를 사용한 모음곡집이다. 이 작품은 “썰(C)”와 “화려한잔치 (Fêtes galantes)”의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참한 혼돈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두 개의 시가 사용되었다. 『두 개의 시』는 극도로 대조적인 두 모습을 각각의 시에 나란히 배치시켜 더욱 상반되는 극적 효과를 창출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예술과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예술가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연구과제이며, 음악 분석을 통해 시가 음악화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1) Pierre Bernac, 심선화 역,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청림출판사, 2001), 345.

II. 본 론

1. 프란시스 뿔랑(François Poulenc)의 음악

1) 프란시스 뿔랑의 생애

프란시스 뿔랑(François Poulenc, 1899-1963)은 1899년 1월 7일 조제약 공장을 하는 부유한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음악 애호가였던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덕분에 5세인 1904년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뿔랑은 1913년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²⁾의 『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 1913)』을 듣고 크게 감명 받아 그 이후 작곡을 시도하게 된다.

1915년 뿔랑은 피아니스트이자 드뷔시와 라벨의 친구였던 리카르도 비네(Ricardot Vinès, 1875-1943)³⁾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된다. 뿔랑은 그 당시 드뷔시와 라벨의 곡을 소화하는 자신의 스승인 비네를 존경하였으며, 피아노 페달사용법과 스타카토 연주를 배움으로써 작곡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후 선율의 단순함과 대중적 표현을 알려주는 스승 에릭 사티(Eric Satie, 1866-1925)⁴⁾와 훗날 ‘프랑스 6인조’⁵⁾에 형성에 바탕이 되고, 음악적

2) Igor Stravinsky(1882-1971)는 러시아 작곡가이자 2개의 다른 박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폴리 리듬, 2개의 조성을 사용하는 복조성,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율 오스티나토를 사용하여 현대 음악에 새로운 장을 연 신고전주의 대가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 작품으로는 『불새(The Firebird)』, 『페트루슈카(Petrushka)』, 『봄의 제전』 등이 있다.

3) Ricardot Vinès(1875-1943)는 스페인 피아니스트로 드뷔시와 라벨의 음악작품을 잘 이해하여 그들의 많은 작품을 초연하였다. 20세기 음악기법에 있어서 페달사용법과 스타카토 테크닉 등 뛰어난 피아노 기교를 보여준 음악가이다.

4) Eric Satie(1866-1925)는 프랑스 작곡가이자 ‘프랑스 6인조’의 스승이다. 인상주의에 반대하고, 선율의 심플함과 경쾌한 리듬, 풍자를 잘 표현한 작곡가이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곡가 조르주 오릭(Georges Auric, 1899-1983),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 아르튀르 오네게르(Arthur Honegger, 1892-1955) 등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⁶⁾

1917년 뿔랑은 사티의 『행진(Parade, 1917)』 본 후 그의 선율, 선법과 서정적이고 대중적인 표현에 자극을 받았고, 이후 뿔랑은 작곡가로서 첫 작품인 『흑인의 랩소디(Rhapsodie nègre, 1917)』를 사티에게 헌정하였다. 이 곡은 1917년 12월 11일 비유 콜롬비에(Vieux-Colombier) 음악원에서 초연되었다. 같은 해, 많은 연주자들과 문인들과의 교우를 두텁게 하였는데, 성악가 장 바토리(Jean Batori, 1877-1950)⁷⁾, 제르맹 타유페르(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루이 뒤레(Louis Durey, 1888-1979) 등의 음악가들과 문학가 기욤 아폴리네르(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⁸⁾, 장 콕토(Jean Cocteau, 1889-1963)⁹⁾를 알게 된다.

뿔랑은 1921년 군대 제대 후 미요의 권유로 샤를르 케클랭(Charles Koechlin, 1867-1950)¹⁰⁾에게 작곡을 배우게 된다. 케클랭은 직관적이고 확고한 재능을 가진 뿔랑이 음악가로서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 20세기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무조성 12음기법 창시자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¹¹⁾와 그의 제자들인 알반 베르크

5) 프랑스 6인조(Les six) : Germaine Tailleferre, Louis Durey, Georges Auric, Arthur Honegger, Darius Milhaud, Francis Poulenc

6)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20세기 작곡가 연구2』, (음악세계, 2004), 450.

7) Jane Bathori(1877-1950)는 프랑스의 메조 소프라노 가수이고, ‘프랑스 6인조’의 후원자이다.

8) Gaillaume Apollinaire(1880-1918)는 프랑스 시인이다. 뿔랑은 가곡을 작곡할 때 아폴리네르의 시를 많이 사용하였다.

9) Jean Cocteau(1889-1963)는 프랑스 시인, 극작가, 연출가, 화가이다. 인상주의에 반대하는 저널 수탉과 어린광대(Le Coq et l'arlequin)를 써서 ‘프랑스 6인조’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6인조의 미학적 대변자로 알려져 있다.

10) Charles Koechlin(1867-1950)는 프랑스의 작곡가이다. 가곡을 비롯하여 관현악·실내악·피아노곡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라벨 등과 함께 ‘독립음악협회’를 조직하였다. 포레에게 작곡을 배웠으며, 미요, 뿔랑, 타유페르의 스승이다.

11) Arnold Schönberg(1874-1951)는 오스트리아 작곡가로 12음기법의 창안으로 20세기 음악에 영향을 끼쳤다. 또 베르크, 베베른 등 많은 제자를 육성하여 그들과 제2차 빈악파로 불렸다.

(Alban Berg, 1885-1935)¹², 안톤 폰 베베른(Anton von Webern, 1883-1945)¹³등과 만났으며, 이탈리아의 로마, 나폴리 등을 방문하여 전위 음악(musique d'avantgarde)¹⁴ 보급에 앞장 선 알프레도 카셀라(Alfredo Casella, 1883-1947)¹⁵를 비롯한 이탈리아 작곡가들을 만났다.

뿔랑은 1924년 발레 『암사슴(*Les Biches*, 1924)』¹⁶ 으로 마침내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암사슴』은 몬테카를로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발레 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 1872-1929)¹⁷이 이끄는 발레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 이후 그는 가곡과 피아노곡 등 작곡을 계속하였고, 1929년 피아니스트이자 첼발로 연주자인 반다 란도보스카(Wanda Landowska, 1879-1959)¹⁸의 권유로 첼발로를 위한 실내 협주곡 『전원 협주곡(*Le Concert Champêtre*, 1929)』을 작곡한다. 그 밖의 『소교향곡(*Sinfonietta*, 1947)』, 『피아노 협주곡(*Piano Concerto*, 1949)』을 남긴다.

뿔랑은 『G장조 미사(*Mass G*, 1937)』, 『고해성사를 위한 4개의 모테트(*Quatre Motets pour le temps de pénitence*, 1939)』 등의 종교적 작품도 많이 남겼는데, 1935년경 피에르 베르냐크(Pierre Bernac, 1899-1979)¹⁹과 함께 프랑스 중남부 지방의 작은 마을 위제르슈(Uzerche)에 머물던 중 친구인

12) Alban Berg(1885-1935)는 오스트리아 작곡가이다. 제2차 빈악파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3) Anton von Webern(1883-1945)는 오스트리아 작곡가이다. 무조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12음기법을 사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음악에 영향을 끼쳤다.
 14) 전통·관습을 부정한 새로운 사상이나 기법에 바탕을 둔 음악. 예술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등에서 나타났다.
 15) Alfredo Casella(1883-1947)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다. ‘국립음악협회’를 설립하고, 전위음악 보급에 앞장서 현대 이탈리아 음악에 공헌하였다.
 16) 발레곡으로 피아노와 18개의 악기를 위한 곡이다.
 17) Sergei Diaghilev(1872-1929)는 러시아의 발레 프로듀서이자 무대 미술가이다. 발레단 발레뤼스(Ballets Russes)를 창단하여 당대 예술가들을 기용해 작품을 발표하였다.
 18) Wanda Landowska(1879-1959)는 폴란드 출생의 프랑스 피아니스트·첼발로 연주자이다. 개성적인 악센트와 다이내믹한 연주 등이 뛰어났다.
 19) Pierre Bernac(1899-1979)는 프랑스의 바리톤 가수이다. 뿔랑은 그를 위해 많은 가곡을 작곡, 베르냐크에 의해 초연되었다.

피에르 옥타브 페루(Pierre Octave Ferroud, 1900-1936)²⁰⁾의 죽음을 경험한다.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친구의 죽음은 뿔랑이 종교적 작품을 남긴 분명한 이유가 된다.²¹⁾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중, 뿔랑은 음악을 통한 레지스탕스(Resistance)²²⁾ 운동을 하게 되고,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과 폴 엘뤼아르(Paul Éluard, 1895-1952)²³⁾ 등의 문학가들의 시를 사용하여 저항정신을 나타낸다. 전쟁 후, 뿔랑은 성악음악과 오페라 등의 극음악에 집중하게 된다.

1947년, 첫 오페라인 『티레시아스의 유방(*Les Mamelles de Tirésias*, 1944)』은 큰 성공을 거둔다. 이어서 종교 내용의 두 번째 오페라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Dialogues des Carmélites*, 1957)』와 장 콕토의 대본을 사용한 짧은 단막 오페라 『인간의 목소리(*La Voix humaine*, 1959)』를 작곡한다.

뿔랑은 장 콕토의 대본을 사용한 4번째 오페라 『폭탄(*La machine infernale*, 1962)』을 작곡하던 중 1963년 1월 30일, 64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20) Pierre Octave Ferroud(1900-1936)는 프랑스 작곡가이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 1923년 작곡가로 데뷔하여 주목받았으나 요절하였다.

21)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20세기 작곡가 연구2』, (음악세계, 2004), 455.

22) 레지스탕스(Resistance) : 1940년 독일 점령하에 파리에서 <레지스탕스>라는 지하신문이 발행. 저항운동 표어로 쓰기 시작함.저항을 뜻하는 프랑스어

23) Paul Éluard(1895-1952)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시인이다. 사랑과 자유라는 두 가지 주제를 많이 사용하였고, 저항시도 많이 썼다.

2) 프란시스 뿔랑과 프랑스 6인조(Les six)

‘프랑스 6인조’는 독일의 낭만주의와 프랑스의 인상주의(Impressionism)²⁴⁾ 음악에 반대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던 6명의 프랑스 작곡가 루이 뒤레, 다리우스 미요, 아르튀르 오네게르, 제르맹 타유페르, 조르주 오리크, 그리고 프란시스 뿔랑을 말한다. 이들은 낭만주의 음악이 갖는 과장되고 주관적 감정에 회의를 느껴 그 반대되는 스트라빈키의 신고전주의를 지향하고, 사티의 단순함과 자유로우며 풍자와 대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저널 수탉과 어릿광대(Le Coq et l'arlequin, 1918)를 통해 인상주의를 비판하던 장 콕토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²⁵⁾

‘프랑스 6인조’라는 용어는 6명의 작곡가들이 원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20년 1월 16일, 음악 비평가인 앙리 콜레(Henri Collet, 1885-1951)가 6인의 음악회를 본 후 파리의 일간지 코메디아(Comoédia)에 국민주의 ‘러시아 5인조’와 빗대어 ‘프랑스 6인조’라는 제목의 글을 썼을 때였다.²⁶⁾

‘프랑스 6인조’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티는 바그너로 대표되는 후기 낭만주의 음악과 드뷔시로 대표되는 인상주의 음악이 솔직하지 않고 과하며 포장의 많고 재치와 현대적 감각이 결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사티는 재치와 풍자를 사용하여 인상주의 음악의 애매모호함과 낭만주의의 과장된 표현을 해소하고자 했다. 프랑스 6인조는 그런 사티의 음악정신을 받아들여 청중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프랑스 6인조’ 활동은 오래가지 않았으며, 그 중 오네게르, 미요, 뿔랑만이 지속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해 나갔다.²⁷⁾

24) 인상주의(Impressionism) :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예술운동의 한 갈래

25) 민은기, 『서양음악사2』, (음악세계, 2014), 365.

26) 20세기 작곡가 연주회, 『20세기 작곡가 연구2』, (음악세계, 2004), 424.

루이 뒤레(Louis Durey, 1888-1979) : 뒤레는 1888년 파리에서 태어나 19세 때 음악가가 되기를 결심한다. 그는 1914년 쇤베르크의 무조기법을 사용한 『서정적 봉헌(*Offrande lyrique*, 1914)』을 작곡하고, 스트라빈스키의 복조성(Bitonality) 영향을 받아 피아노 연탄곡 『자명종(*Carillon*, 1916)』을 작곡한다. 1921년 ‘프랑스 6인조’의 상징적인 공동작품 『에펠탑의 신랑 신부(*Les Mariés de la Tour Eiffel*, 1924)』를 작곡하던 중 6인조가 세속적 쾌락에 빠진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이해시킨 후 그룹을 탈퇴하였다. 그는 100여 편의 작품을 남겼으며, 이 중 실내악과 피아노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뒤레는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1935년 ‘대중음악연맹’에 가입하여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동시에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대중음악연맹’은 젊은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곡을 원했고, 뒤레는 민속노래를 화성화한 『제작자(*Les constructeurs*, 1947)』를 작곡하였다. 또한 1949-1963년, 정치다툼에 연루된 뒤레는 『한국 빨치산의 노래(*Chant des partisans coréens*)』, 『벤알리 칸타타(*Cantata à Ben Ali*)』 등 정세를 반영한 곡을 쓴다.²⁸⁾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 : 유대계 프랑스인인 미요는 총 443편에 이르는 작품을 썼다. 프랑스 남부 엑상 프로방스(Aix-en-Provence)에서 태어난 미요는 프로방스의 풍경과 소리들이 그의 창작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미요의 음악은 남부지역 특유의 강한 선율과 개방적인 면이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개성을 보여준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적 배경을 텍스트로 자주 이용했다. 미요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다조성(polytonality)²⁹⁾이며 『브라질의 추억(*Saudades do Brazil*,

27) 이석원, 『현대사회·현대문화·현대음악』, (도서출판 심철당, 2010), 115-117.

28) 20세기 작곡가 연주회, 『20세기 작곡가 연구2』, (음악세계, 2004), 431-433.

29) 다조성(polytonality) : 1개의 악곡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조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1921)』 등의 작품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 밖의 작품으로는 발레음악 『지붕위의 소(*Le boeuf sur le toit*, 1919)』, 『세계의 창조(*La création du monde*, 1923)』 과 오페라 『오르페우스의 불행(*Les Malheurs d'Orphée*, 1924)』, 『불쌍한 선원(*Le Pauvre Matelot*, 1926)』, 『크리스토프 콜럼버스(*Christophe Colombe*, 1929)』, 『다윗(*David*, 1954)』 등이 있다. 미요는 1940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캘리포니아 밀스 대학(Mill's College) 에서 1947년에는 파리음악원의 교수로 재직한다.³⁰⁾

아르튀르 오네게르(Arthur Honegger, 1892-1955) : 프랑스 태생의 스위스인인 오네게르는 1911년에 취리히 음악원에서 2년을 공부하고, 파리음악원에 입학하여 바이올린, 대위법, 푸가, 화성법, 지휘를 배웠다. 그의 독일어권의 스위스 국적과 종교는 코랄 작품을 쓰는데 기초가 되었고, 프랑스의 간결하고 자유분방한 음악 기법을 통해 강한 개성을 표출하였다. ‘프랑스 6인조’의 일원이기는 했지만 다른 동료 작곡가들에 비해 코크토의 미학과 사티의 음악에 덜 수용적이었던 오네게르는 거의 모든 장르에 작곡을 하였으며, 영화음악과 방송음악 등 새로운 매체를 위한 음악에도 기여을 하였다.

오네게르는 1921년 작곡한 교향시 『승리의 호라티우스(*Horatius victorieux*, 1921)』 통해서 작곡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그는 폴리폰니부터 폴리리듬, 근대적 재즈의 기법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다윗왕(*Le Roi David*, 1921)』, 오라토리오 『화형대 위의 잔다르크(*Jeanne d'Arc aubucher*, 1935)』, 칸타타 『죽음의 춤(*La Danse des morts*, 1939)』 등에서 그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 1923년에는 『퍼시픽 231(*Pacific 231*, 1923)』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에서 리듬은 수학적인 가속의 느낌과 바흐의 코랄 변주곡 형식을 사용한 혁신적인 곡이다.

1927년 오네게르는 그의 피아노 작품의 주요 연주자가 될 앙드레 보라브

30) 20세기 작곡가 연주회, 『20세기 작곡가 연구2』, (음악세계, 2004), 442-449.

르크(André Vaurabourg, 1894-1980)와 결혼하여, 이후 그는 부인과 강연자이자 지휘자, 그리고 아내의 반주자로서 유럽과 미국을 순회하고, 1938년 음악 출판사 협회 국제 연맹 대표가 된다.

오네게르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5편의 교향곡을 작곡하였는데 그 중 『전례교향곡(*Symphonie liturgique*, 1946)』이 유명하다. 그는 다성 음악 작곡가이며, 작품들은 모두 성공적이었다.³¹⁾

제르맹 타유페르(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6인조의 유일한 여성 작곡가인 테유페르는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장학생으로 인정받았으나, 음악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케클렝에게 작곡 레슨을 받았다. 가브리엘 포레(Gabriel Urbain Fauré, 1845-1924)³²⁾, 모리스 라벨(Maurice Joseph Ravel, 1875-1937)³³⁾의 영향을 받았으며, 1926년에는 관현악법에 관한 라벨의 조언을 받아 『하프를 위한 콘체르티노(*Concerto for Harp*, 1926)』를 작곡하였다. 발레, 오페라, 협주곡, 소나타, 현악 4중주 등의 대규모 곡들도 작곡하였다.³⁴⁾

조르주 오릭(Georges Auric, 1899-1983) : 오릭은 어려서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웠으며, 1913년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여 대위법과 푸가를 배우고, 1914년 땡디(Vincent d'Indy, 1851-1931)³⁵⁾에게 작곡을 배웠다. 1923-1930년 사이에는 무대음악을 많이 작곡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영화 음악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1952년에는 조성과 무조성이 공존하는 발레곡과 2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을 쓰고, 1962-1968년에는 파리 오페라(Paris Opera)와 오페라 코미크(Opera-comique)의 단장으로 있으면서, 프랑스 오페

31) 20세기 작곡가 연주회, 『20세기 작곡가 연구2』, (음악세계, 2004), 434-441.

32) Gabriel Urbain Fauré(1845-1924)는 프랑스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이다.

33) Maurice Joseph Ravel(1875-1937)는 현대 프랑스 음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프랑스 작곡가이다.

34) 위의 책, 457-459.

35) Vincent d'Indy(1851-1931)는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육가로 국민음악협회의 회장과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의 교장 겸 작곡 교수이다.

라 활성화에 기여했다. 오릭은 발레음악, 리트, 피아노 및 오케스트라 음악을 작곡하였으며, 특히 영화음악에서 활약하며 무대음악 분야에 큰 역할을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귀찮은 사람들 *Les Fâcheux*>, <미녀와 야수 *La Belle et la Bête*>, <광명의 길 *Chemin de lumière*> 등이 있다.³⁶⁾

3) 프란시스 뽀랑의 가곡의 특징과 시기별 분류

뽀랑은 피아노곡, 관현악, 실내악곡, 발레음악 등 여러 다양한 음악도 다수 작곡하였지만 합창곡, 오페라, 예술가곡 등의 성악음악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다.

문학적 자극이 창작의 가장 큰 영감이었던 뽀랑은 총 146곡의 가곡을 작곡했다. 그의 가곡은 항상 명확한 조성을 사용하고, 자연스러운 선율의 흐름이 특징적이다. 익살스러움부터 진지하고 서정적인 여러 분위기의 가곡을 작곡한 뽀랑은 단순한 운음계적 화성과 불협화음의 피아노 반주를 가사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³⁷⁾ 또 그는 가곡에서 자신이 표현하는 모든 음악적 지시어들이 모두 지켜지기를 원했다. 음가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고, 파를란도(Parlando)³⁸⁾를 적게 사용하는 한편, 레가토(legato)³⁹⁾와 포르타멘토(Portamento)⁴⁰⁾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 템포의 지시가 분명하고, 크레센도(crescendo)나 디미누엔도(diminuendo)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피아노의 페달음은 많이 사용되었고, 화음은 부드럽게 연주해야 했다.⁴¹⁾

뽀랑은 남성을 위한 곡과 여성을 위한 곡을 따로 작곡한 후 별도로 표시

36) 20세기 작곡가 연주회, 『20세기 작곡가 연구2』, (음악세계, 2004), 427-430.

37) Pierre Bernac, 심선화 역,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청림출판사, 2001), 345.

38) 노래한다기보다 이야기하듯이 낭독조로 부르라는 뜻이다.

39) 음악에서 계속되는 음과 음 사이를 끊지 말고 연결하여 연주하라는 뜻이다.

40) 어떤 음에서 음정이 다른 음으로 매끄럽게 옮겨가는 것을 지시한다.

41) 위의 책, 346.

해 두었다.⁴²⁾ 빨랑의 가곡은 총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① 제 1시기 (1917-1925)

제 1시기는 프랑스 6인조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티와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이 표현된 시기이다. 최초의 작품은 성악과 일곱 개의 악기를 위한 『흑인의 랩소디(*Rapsodie nègre*, 1917)』이며, 사티에게 헌정되었다. 1919년에는 『동물 우화집(*Le Bestiaire*, 1919)』를 작곡하였는데, 여섯 종류의 동물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시인 아폴리네르의 풍자적 묘사가 잘 들어나 있다. 여섯 곡으로 구성된 연가곡인 이 작품은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현악 4중주의 반주를 사용한다. 또한 빨랑은 코토 시에 의한 『휘장(*Cocardes*, 1919)』을 작곡하였다. 이 시기는 간결하며 느낌이 풍부한 서정적 선율이 합쳐진 것이 특징이다.⁴³⁾

② 제 2시기(1926-1935)

제 2시기에 빨랑은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였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⁴⁴⁾, 앙드레 지드(André Gide, 1869-1951)⁴⁵⁾, 폴 발레리(Paul Valéry, 1871-1945)⁴⁶⁾, 막스 자콥(Max Jacob, 1876-1944)⁴⁷⁾, 폴 클로델(Paul Claudel, 1868-1955)⁴⁸⁾ 등과 시 낭독을 자주하였으며, 이후 아폴리

42) 그 곡들은 <부록>에 표시 되어있다.

43) 세광출판사 편집위원회, 『최신명곡해설전집』 (세광출판사, 1983), 371.

44) James Joyce(1882-1941)는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을 이끈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이다. 인간 내면의 미묘한 심리 갈등을 묘사하여 20세기 심리소설에 영향을 주었다.

45) André Gide(1869-1951)는 문학의 여러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고, 20세기 프랑스 소설 및 현대 소설 발전에 공헌했다. 194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46) Paul Valéry(1871-1945)는 프랑스의 시인·수필가·비평가이다. 논설과 문학을 주제로 글을 썼으며, 정치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47) Max Jacob(1876-1944)는 프랑스의 시인이다. 20세기초 현대시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48) Paul Claudel(1868-1955)는 프랑스 시인이다. 20세기 프랑스문학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네르(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⁴⁹⁾,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⁵⁰⁾,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1881-1973)⁵¹⁾, 폴 엘뤼아르, 루이 아라공과 ‘토요회’라는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맺었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말레르브(François de Malherbe, 1555-1628)의 시에 의한 『묘비명(Épitaphe, 1930)』, 『아폴리네르에 의한 네 개의 시(Quatre poèmes, 1931)』, 자콥에 의한 『5개의 시(Cinq poèmes, 1931)』를 작곡하였고, 바리톤과 메조소프라노를 위한 칸타타 『가면무도회(Le bal masqué, 1932)』 등이 있다. 엘뤼아르의 『다섯 개의 시(Cinq poèmes, 1935)』와 피에르 드 롱사르(Pierre de Ronsard, 1524-1585)⁵²⁾의 『그의 기타에(A sa guitare, 1935)』 역시도 이 시기의 작품들이다. 제 2시기는 가곡 창작의 “개시기”이며⁵³⁾ 그와 토요회에서 친분을 맺은 시인들의 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③ 제 3시기(1936-1945)

제 3시기는 그의 인생과 작품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가장 많은 수의 가곡과 합창, 오페라 등의 극음악이 이 시기에 작곡된다. 1936년 빨랑은 친구인 페루의 죽음을 경험하고, 페루를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그는 큰 충격을 받는다. 이를 계기로 종교적 성격이 나타나는 다수의 작품을 작곡하였고, 코랄 형식과 서정적 선율, 반음계적 진행, 넓은 음역 등이 사용하였다. 주요 가곡은 바리톤 베르냐를 위해 엘뤼아르의 시에 붙인 9곡의 연가곡 『어느 낮, 어느 밤(Tel Jour, telle nuit, 1937)』과 아폴리네르의 시에

49) Guillaume Apollinaire(1880-1918)는 이탈리아 태생의 프랑스 시인이며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이다. 이 시인의 시는 빨랑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50) Pablo Picasso(1881-1973)는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이다.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거장으로 유명하다.

51) André Breton(1896-1966)는 프랑스 시인, 수필가, 평론가, 편집자이다. 초현실주의 운동의 창시자 중 한명이다.

52) Pierre de Ronsard(1524-1585)는 프랑스의 궁정 시인으로 문예 부흥기의 대표적 시인이다.

53) 세광출판사 편집위원회, 『최신명곡해설전집』, (세광출판사, 1983), 372.

의한 5곡의 모음곡 『평범한 것들(*Banalités*, 1940)』, 빌모랭(Louise de Vilmorin, 1920-1972)의 『변신(*Métamorphoses*, 1943)』 등이 있다. 또 뿔랑의 세 편의 오페라 중 첫 작품인 『티레지아스의 유방(*Les mamelles de Tirésias*, 1944)』이 작곡되었다.⁵⁴⁾

④ 제 4시기(1946-1959)

제 4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시기이며, 전쟁의 영향으로 이전의 작품들 보다 선율적이고, 화성이 풍부하다 즉 명쾌하고 위트 있는 초기 작품과 달리 음악적 깊이와 심오함, 종교적인 면과 복합적인 스타일이 더해졌다. 대표 작품으로는 네스노스(Robert Desnos, 1900-1945)의 저항시에 붙인 『실종자(*Le disparu*, 1947)』와 아폴리네르의 시에 붙인 아홉 곡의 연가곡 『상형시집(*Calligrammes*, 1948), 엘뤼아르의 시에 붙인 일곱 곡의 연가곡 『냉기와 열기(*La Fraîcheur et le Feu*, 1950)』가 있다. 또한 엘뤼아르의 시에 의한 『화가의 작업(*Le travail du peintre*, 1956)』은 뿔랑과 친분이 있던 일곱 명의 화가들의 이름을 각 곡의 타이틀로 한 연가곡이다. 또한 합창곡 『성모의 슬픔(*Stabat mater*, 1950)』, 『글로리아(*Gloria*, 1959)』 등이 있으며, 이 시기에 오페라 『카르멜 수도회 수녀들의 대화(*Dialogues des Camélites*, 1956)』와 『인간의 목소리(*La Voix humaine*, 1959)』가 작곡되었다.⁵⁵⁾

⑤ 제 5시기(1960-1963)

마지막 시기인 제 5시기에는 작품의 수가 줄어든다. 뿔랑의 마지막 가곡인 『짧은 밀짚(*La courte paille*, 1960)』은 모리스 카렘(Maurice Carême, 1899-1977)⁵⁶⁾ 시에 의한 작품으로 일곱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가곡이다.

54)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20세기 작곡가 연구2』, (음악세계, 2004), 455-456.

55) 세광출판사 편집위원회, 『최신명곡해설전집』, (세광출판사, 1983), 372.

1962년 클라리넷과 오보에를 위한 두 개의 소나타를 완성하며, 마지막 오페라인 <폭탄>을 쓰던 중 사망한다.⁵⁷⁾

56) Maurice Carême(1899-1977)는 벨기에 시인이다.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시를 많이 썼다.
57) 세광출판사 편집위원회, 『최신명곡해설전집』, (세광출판사, 1983), 373-374.

2. 루이 아라공의 시

1) 루이 아라공의 생애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은 프랑스 저항 시인이자 소설가, 평론가이다. 다다이즘(Dadaism)⁵⁸⁾과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했으며, 공산주의에도 가담했으나 권력자로 변해가는 상층계급의 행태와 소련 일인자가 된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⁵⁹⁾의 나라 개조로 인해 정치적으로 숙청에 인한 많은 사람들 죽었다. 또한 농업 체계 개편이라는 이유로 수만 명이 굶어 죽고, 3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는 과정에 절반이상 죽었다. 이러한 잔인함에 실망한 나머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말년에는 자신의 삶과 사실주의 문학을 통한 저항 운동을 하였다.⁶⁰⁾

아라공은 미혼모인 어머니를 누나로 알고 자라 자신이 고아인 줄 알고 자랐다. 사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가정이 있던 사람으로 약 서른 살이나 어린 아라공의 어머니를 버렸고, 이에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 또한 숨기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아라공의 반항심을 키웠고 정체성의 결핍으로 인한 반항적 성격은 이후 그의 삶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⁶¹⁾

58) 다다이즘(Dadaism) :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으로 191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트리스탕 차라(Tristan Tzara, 1896-1963)가 몇 명의 시인, 화가들과 함께 붙인 전위예술 명칭이다. 과거의 모든 예술형식과 가치를 부정하고 비합리성, 반도덕적, 비심미적인 것을 따른다. 현대 예술 사조 중 하나인 다다이즘은 미래를 위한 혁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59) Joseph Stalin(1879-1953)는 소련의 정치가이다. 강철의 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비인간적으로 수많은 인민의 피위에 강력한 소련을 건설한다.

60) 김윤경, 『풀랑의 아라공의 두 개의 시레 붙인 ‘멜로디’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1), 13.

61) 이진성, 『프랑스 현대시』, (아카넷, 2008), 166-167.

아라공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 군의관으로 출전하게 되고, 전쟁 후 1919년 브르통, 필리프 수포(Philippe Soupault, 1897-1990)⁶²⁾ 등과 함께 잡지 리테라튀르(Littérature)를 창간하여 다다이즘 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때 시집 『축화(*Feu de joie*, 1920)』를 발표하였다. 1924년 브르통이 초현실주의(Surrealism) 운동을 시작하자 그를 따라 초현실주의에도 가담하였고, 걸작 장편소설 『파리의 농부(*Le Paysan de Paris*, 1926)』는 그 산물이다.

1928년 아라공은 자신의 사상과 초현실주의의 모순에 한계를 느꼈다. 이 시기에 아라공은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해 러시아 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Vladimir Mayakovsky, 1893-1930)⁶³⁾를 만나고 그의 의누이 엘자 트리올레트와 결혼하며 극복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와 1930년 소련으로 가서 공산주의에 심취했다. 초현실주의와 결별한 아라공은 1933년부터 좌파 일간지 위마니테(L'Humanité)의 기자로 일하며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작가가 되었다. 이때 프롤레타리아(prolétariat)⁶⁴⁾의 계급투쟁을 역사적 관점에서 묘사한, 총 4권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 『현실세계(*Le Monde réel*, 1933-44)』을 발표했다. 또한 6권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 『공산주의자들(*Les Communistes*, 1949-51)』과 『성스러운 주일(*La Semaine sainte*, 1958)』, 『임종(*La Mise à Mort*, 1965)』은 모두 공산주의에 관한 소설들이다.⁶⁵⁾

아라공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공산주의 신념을 전파하려고 하였으나, 공산당 상류계층의 망가져가는 행태에 실망하여 공산주의를 포기하

62) Philippe Soupault(1897-1990)는 프랑스 시인, 소설가, 비평가이다. 초현실주의 운동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63) Vladimir Mayakovsky(1893-1930)는 러시아 공산당의 대변인으로 반국가활동을 하다 감옥살이를 여러번 하게되고, 독방에서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의 작품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도전적인 형식과 내용을 사용하였다.

64)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 무산계급 또는 노동계급이라고 하는데, 노동력 이외에는 생계수단을 갖지 못하는 빈곤층을 가리켜 독일의 사회학자인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가 1840년대에 사용한 개념이다.

65) 이진성, 『프랑스 현대시』 (아카넷, 2008), 166-167.

며 프랑스로 귀국하여 조국을 위한 저항운동을 하였다. 1968년 아라공은 71세 나이에 무색하세 파리에서 일어난 학생 거리 시위에도 동참하기도 했다. 그는 1981년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도뇌르(Ordre de la Légion d'honneur) 훈장을 받으며 문학가로서 인정을 받는다.⁶⁶⁾

2) 루이 아라공의 시의 특징

아라공은 시의 운율과 언어 조작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그의 시, 소설, 비평, 에세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라공의 작품은 그의 사회적 활동에 따라 초기(1919-1932), 중기(1932-1960), 말기(1960-1982)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다다이즘 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브르통과 초현실주의를 함께했던 시기이며, 중기는 제2차 세계대전과 사실주의, 공산주의에 빠져 활동한 시기이다. 말기는 자신의 삶과 사실주의 문학을 통한 저항운동을 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초기(1919-1932)

아라공이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한 초기는 아라공이 전통적인 재현기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학 언어를 모색하였다.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 기능을 이용하여 현실의 꿈이나 신화를 융합한다. 특히, 이 시기의 작품에는 초현실적인 꿈과 서정성이 대표되는 특징이다.

시집 『환희의 불(*Feu de joie*, 1920)』, 『영원한 운동(*Le Mouvement perpétuel*, 1925)』을 통해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추구하였고, 『방종(*Le*

66) 김이나, 『아라공의 시에 나타난 거울과 視線의 이미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2), 1-4.

Libertinage, 1924)』, 『파리의 농부(*Le Paysan de Paris*, 1926)』, 『문체론(*Traité du style*, 1928)』을 발표하였다. 특히 도시의 환상과 파리의 일상적 모습을 농부의 시각으로 이야기한 산문집 『파리의 농부』는 아라공의 대표작이며 또한 초현실주의 자체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다.⁶⁷⁾

② 중기(1932-1960)

초현실주의에 회의를 느낀 아라공은 사회개혁을 외치며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1939년 9월 독일 군의 점령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더욱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슬픔과 분노로 조국을 위한 저항 시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념을 작품에 반영한다. 문학적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초현실주의 시인으로서 초기에 사용한 자유로운 형식을 버리고, 프랑스 시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한 운율을 따른 것이다. 이는 자신의 저항의식을 담은 시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아라공은 군대에서 발행한 잡지 『철모를 쓴 시인들(*Poètes casqués*, 1940)』에 『1940년의 운(*La Rime en 1940*)』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민중시가 확장력을 가지려면 운⁶⁸⁾을 갖추어야 하고, 운은 시의 운율을 규칙적으로 리듬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읽고, 듣기에 좋으며 시의 매력을 증진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1940년 이후 아라공의 시 작품 대부분에는 “엘자(Elsa)”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이는 아내의 이름으로, 가장 큰 시적 영감이며 원천 이였다. 아라공은 엘자를 저항시를 쓸 때에도 많이 사용하였는데 사랑과 역사를 융합하여 서정성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아라공은 사랑의 시인이자 민중의 시인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단장(*Le Crève-Coeur*, 1941)』, 『프랑스의 기

67) 이진성, 『프랑스 현대시』, (아카넷, 2008), 166-169.

68) 운이란 프랑스 전통시법 중 시의 운율을 결정짓는 시행의 말미에서 일어나는 같은 소리의 반복을 말한다.

상나팔(*Diane française*, 1945)』, 『엘자의 눈(*Les Yeux d'Elsa*, 1942)』, 『엘자만의 파리(*Il n'est Paris que d'Elsa*, 1964)』 등은 중기의 대표 작품들이다.⁶⁹⁾

③ 말기(1960-1982)

아라공은 1968년 공산주의와 이별하였다. 우여곡절이 많은 그의 긴 삶 중에 변치 않는 것은 엘자에 대한 사랑과 사회 개혁정신,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번민이었다.

말기의 아라공은 프랑스 시의 각종 운율은 물론 자유시, 구어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였다. 이 때에 그라나다⁷⁰⁾를 중심 배경으로 한 『엘자에 미친 사람(*Le Fou d'Elsa*, 1963)』을 발표했다. 『엘자에 미친 사람』은 시와 희곡, 소설을 융합 시키며 아라공의 시적 재능이 결집된 대작으로 널리 알려졌다.⁷¹⁾

69) 이진성, 『프랑스 현대시』, (아카넷, 2008), 256-262.

70) 그라나다(Granada) :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자치지방의 도시이다. 하나의 아랍 문화지역이다.

71) 위의 책, 166-178.

3. 20세기 음악의 전반적 흐름을 통해 본 이론적 배경

1) 신고전주의(Néo-classicisme)

신고전주의는 20세기의 음악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행했던 사조로 본다. 그러나 신고전주의란 어느 한 시대에만 사용된 음악양식이라기보다, 과장된 주관적 음악 표현을 절제하는 하나의 정신으로 볼 수 있다.⁷²⁾ 20세기의 작곡가들은 19세기의 주관적이며 극단적 감정을 표현한 음악에 회의감을 느끼고 과도한 표현과 대규모 오케스트라, 표제적 음악 등에 반대 하며 반낭만주의, 반인상주의, 반표현주의 성향의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게 된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 『자서전 (Chroniques de ma vie 1935)』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음악의 진정한 본성은 어떤 느낌, 마음의 자세, 심리적 상황, 자연의 현상 등 그 아무것도 ‘표현’하는 힘이 본질적으로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음악의 현상은 만물의 질서, 특히 ‘인간과 시간’사이의 조정을 포함하는 사물의 질서를 설정한다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⁷³⁾

이는 그가 19세기 과도한 표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신고전주의자들은 음악의 의미는 음악 안에만 있고, 음악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은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⁷⁴⁾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 부활로 절대적 음악 형식을 재현하였는데, 19세기의 교향시나 발레, 오페라 등에 가려졌던 고전적 형식 즉 소나타와 실내악 등을 재현하였다. 그로 인해 바로크 이전의

72) 이석원, 『현대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72.

73) 이석원. 『현대사회·현대문화·현대음악』, (도서출판 심설당), 2010. 94.

74) 위의 책, 94.

대위법적 기법과 파르티타(partita),⁷⁵⁾ 콘체르토 그로소(concerto grosso),⁷⁶⁾ 토카타(toccat),⁷⁷⁾ 파사칼리아(passacaglia),⁷⁸⁾ 리체르카레(ricercare)⁷⁹⁾ 등 옛 음악의 형식을 사용하였고, 자신들의 개성을 접목시켜 음악에 나타냈다.⁸⁰⁾ 신고전주의 작곡가들은 오케스트레이션도 화성적 짜임새를 위해 절제하여 사용했다. 이는 선율의 움직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악기를 편성하고, 불필요한 화성과 리듬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자제함으로써 고전적 가치인 질서와 균형을 지키려한 것이다.⁸¹⁾ 이와 같이 신고전주의 음악은 19세기 음악에 반하는 새로운 양식의 음악으로 17세기의 주된 작법인 대위법적 구조 및 폴리리듬, 오스티나토 등도 포함한 고전시대까지의 전통적 형식에 20세기의 불협화음, 무조성, 다조성 등을 결합한 것이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로는 앞서 언급되었던 스트라빈스키가 있다. 그의 발레곡 『풀치넬라(Pulcinella, 1920)』는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다.⁸²⁾ 또, 프랑스 초기 현대음악을 이끌었던 ‘프랑스 6인조 (Les Six)’가 있다.⁸³⁾

75) 파르티타(partita) : 바로크 시대에 쓰던 악곡의 형식. 변주곡을 가르키는 말이었지만 나중에 모음곡을 뜻하게 되었다.

76) 콘체르토 그로소(concerto grosso) :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다악장 형식의 협주곡.

77) 토카타(toccat) :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건반악기로 화려한 기교적 연주를 하기 위해 만든 전주곡.

78) 파사칼리아(passacaglia) : 바로크 시대의 느린 삼박자 계열의 대표적 변주곡 형식. 주제가 저음부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79) 리체르카레(ricercare) : 하나 이상의 주제가 선율 모방을 통하여 발전해 나가는 16~17세기에 유행한 기악곡.

80) 이종구,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98.

81) 민은기, 『서양음악사2』, (음악세계, 2014), 360.

82) 위에 책, 95.

83) 오카다 아케오, 이진주 역,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서양음악사』 (삼양미디어, 2009), 254.

2) 초현실주의(surrealism)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직후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문학 및 예술 운동이다. 전쟁으로 인해 무질서한 사회적 체제와 사상, 그리고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저항 정신은 다다이즘을 이끌어냈고, 전통적 예술형식과 가치를 부정하는 다다이즘에서 초현실주의가 탄생한다.⁸⁴⁾

초현실주의는 1924년, 문학가들인 브르통, 아라공, 수포, 엘뤼아르 등이 모여서 『초현실주의 선언(manifeste de surréalisme)』을 발표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고 초현실주의 단어를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⁸⁵⁾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는 아폴리네르의 작품 『티레지아스 유방』 서문에서 사용한 말을 브르통이 빌려오면서 사용되었다. 초현실주의는 문학, 예술, 정치, 철학, 이념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전통적 관습을 탈피하고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 상상력을 외부로 표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고 현실의 이상적이고 합리적 의식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 사고를 함으로써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여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려했다.⁸⁶⁾ 초현실주의는 인간이 가진 무의식의 세계와 본능을 인정하고 자유를 회복시키려는 운동이다.

초현실주의의 탄생과 전개는 오랜 시간 진행되진 않았으나 전통적 예술에서 현대 예술로 넘어오는 시기에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대전으로 인해 고통과 억압을 받던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에 자유를 주었다.

84) Andre Breton, 황현산 역,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2012), 55.

85) Georges Sebbag, Le Surréalisme, 최정아 역, 『초현실주의』, (현대신서, 2005), 10.

86) 위에 책, 15.

4. 프란시스 뽀랑의 「Deux Poèmes de Louis Aragon」 분석

『두 개의 시 (Deux Poèmes de Louis Aragon)』은 1940년 제 2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인들이 독일군의 침략을 피해 피난하던 모습을 보고 아라공이 쓴 저항 시이다.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이 두 개의 시를 선택하여 가곡으로 만들어 출판하였다. 이 작품은 풍부한 선율과 화성은 반음계적으로 진행되고, 넓은 음역을 사용한 뽀랑의 제 3시기 작품이다. 전쟁의 혼돈을 이야기하는 쎬(C)와 전쟁을 단순하고 풍자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화려한 잔치(Fêtes galantes)가 각각의 작품들이다.

1) 루이 아라공의 시, “C”

J'ai traversé les ponts de Cé
C'est là que tout a commencé
Une chanson des temps passés
Parle d'un chevalier blessé

D'une rose sur la chaussée
Et d'un corsage délacé
Du château d'un duc insensé
Et des cygnes dans les fossés

De la prairie où vient danser
Une éternelle fiancée
Et j'ai bu comme un lait glacé
Le long lai des gloires faussées

La Loire emporte mes pensées
Avec les voitures versées
Et les armes désamorçées
Et les larmes mal effacées

O ma France, ô ma délaissée
J'ai traversé les ponts de Cé

나는 “C”다리를 건넜다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 곳
지나간 시간의 노래는
부상당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 한다

도로 위에 놓인 장미 한 송이
그리고 풀어진 블라우스
미친 공작의 성과
그리고 호수의 백조

춤추는 초원의
영원한 약혼자는
그리고 차가운 우유를 마신 듯
잘못된 영광의 긴 노래를 하고

루와르 강은 나의 생각을 앗아간다
전복된 마차들도 같이
그리고 작동을 멈춘 무기들과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눈물들로

오 나의 프랑스여, 오 나의 버림받은 나라여
나는 “C”다리를 건넜다.

2). 쎄(C) 분석

“C”는 cé로 발음되고 각 행의 마지막 음절이 cé로 끝나 제목이 쎄(C)로 지어졌다.⁸⁷⁾ 이 곡은 1940년 독일군에 패한 후 피난 가는 프랑스인들의 불안하고 비극적인 모습을 표현한 곡이다. 시인인 아라공은 평화로운 과거의 회상과 혼란스러운 피난길을 상반되게 대조시킨다. 쎄(C)에서는 불안한 피난 상황을 끝없이 움직이는 조성과 불협화음 그리고 못갓춘마디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모든 음악적 표현들은 무기들과 사람들이 뒤섞이며 루와르(Loire) 강을 건너는 현재의 비극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쎄(C)는 A-B-C로 형식을 나눌 수 있으며, Très calme (매우 조용한)의 ♩=54로 고요하고 느리게 연주되어야 하는 곡이다.

87) Pierre Bernac, 심선화 역,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청림출판사, 2001), 354.

<표1> 제 1곡의 “C” 구조

형식	마디	박자	빠르기
A	5-12	3/4	Très calme (매우 조용한) ♩ =54
B	12-20		
C	20-40		

<표2> 제 1곡의 “C” 조성

구조	마디	조성
전주	1~4	abm
1연	5~8	abm
	9~12	abm (V)
2연	13~16	Abm-fm (V)
	17~20	fm (V)-Ebm (V)
3연	21~24	Gb-E
	25~28	Eb-Db (V)
4연	29~32	Ab (V)
	33~36	Gb-E
5연	37~40	Eb-A (V)-Ab
coda		41 Ab

A부분으로 전주 네 마디는 처음 시작하는 성악성부의 멜로디를 차용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피난 가는 사람들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나타낸다. 조성은 a^b 단조로 시작하고 반주부에 Céder à peine(점점 느리고 여리게)가 표기되어있다. 피아노는 피난을 가는 피난민들의 지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크레센도(crescendo)와 데크레센도(decrescendo)를 표현하여 천천히 마무리 되어야한다.

<악보-1> 제 1곡 C. 마디 1-4

A

Très calme ♩=54

CHANT

PIANO

Très calme
très librement

mf

sempre m.g.

Céder à peine

a^b minor ;

성악 멜로디의 첫 부분 J'ai traversé les ponts de Cé(나는 “쎄”다리를 건넜다)에서 우울한 어조로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하는데 연주자는 피아니시모(pp)로 조용히 시작하여 피난길의 지친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 이어서 마디 6에 이음줄을 포르타멘토(portamento)하여 C'est là(그 곳) 가사를 강조해 슬픔을 더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Cé는 긴 음가로 세팅이 된다. 마디 12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넘어가기 위해 리듬의 변화가 생기는데 첫 프레이즈 리듬이 못갖춘마디가 아닌 정박으로 시작된다.

<악보-2> 제 1곡 C, 마디 5-12

5 *pp* *mf*
 J'ai traver - sé les ponts de Cé C'est là que tout a commen - céé

pp *mf*
sempre m.g.
 a^b minor ;

9 *pp* *sempre pp*
 U - ne chanson des temps passés Par - le d'un che - va lier bles - sé

pp *très lié*

마디 12-20에서는 이 곡의 B부분으로 현재의 상황과 과거를 행복했던 모습을 회상하며 부르는 부분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며, 연주자는 Et(그리고)라는 부사가 나왔을 때 전 가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인지해 노래해야한다. 베이스의 움직임도 곡의 분위기에 도움을 주는데, Cb-Db-Eb-Fb-F-G-Ab-Bb-C-Db까지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전조에 의해 곡이 고조된다. 마디 16에서 점점까지 온 후, 시퀀스(sequence)⁸⁸⁾에 의해 2도 하행 패턴의 화성 변화가 생기며 프레이즈가 정리된다. 마디 12-16에 cé가 위치하는 부분에서 서스펜션(suspension)⁸⁹⁾이 사용되었는데, 현재에 불안한 상황을 잠시라도 잊게 만들어주는 과거의 회상 모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3> 제 1곡 C, 마디 12-20

88) 시퀀스(sequence) : =동형진행. 비교적 짧은 음형 또는 코드의 연결이 반복되는 것.

89) 서스펜션(suspension) : 계류음. 앞 코드의 코드 톤 일부가 후속 코드 내에 비화성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마디 20-24는 이 곡에 유일하게 완전히 자신의 과거 속 아름다웠던 모습을 노래하는 부분이다. 이 전까지 긴장감을 높여왔던 것을 마디 16-19의 요소를 재배치하여 특징적인 음형에 의한 시퀀스를 만들어 냈으며, 안정적인 형태로 긴장을 완화하였다. 이 때 가사는 전쟁과 반대로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전쟁을 잠시나마 잊고 과거 속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린다. 음악적 표기도 피아니시모와 매우 부드럽게 가벼운(*doucement effleurc*)으로 기보되었다.

<악보-4> 제 1곡 C, 마디 20-24

20 *pp* *a Tempo*

De la prai-rie où vient dan ser Une é - ter nel - le fi - an - cé - e

ppp *doucement effleurc*

Gb Major; V I V I

마디 25에서 Et가 나오면서 <악보-4>의 아름다운 과거의 모습에서 다시 암담한 현실로 돌아온다. 현재의 상황이 더욱 끔찍해지는 부분이다. B부분의 처음에 해당되는 13-16마디 음형들이 재배치되어 다시 고조되는 형태를 띠다가 처음 A부분의 도약 음정들이 사용되어 음형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메조포르테(mezzo forte), 크레센도, 포르테(forte), 데크레센도 지시어가 표기되어있어 멜로디는 극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베이스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

<악보-5> 제 1곡 C, 마디 25-28

25 *mf* *f*

Et j'ai bu comme un lait gla-cé Le long lai des gloi - res faus-sé es

mf *f*

E♭ Major; I V D♭ Major; I V

이 곡의 C부분으로 계속적인 전조로 인해 불안한 심리적 상황을 나타낸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빼앗긴 자신의 삶에 대해 지시어로 강조하였는데 마디 29에서 피아노로 작게 시작되었지만 전조가 진행되며 불안함을 고조시키고 “Avec les voitures versées(전복된 마차들도 같이)”에서 크레센도, 포르테, molto 테크레센도, 피아노를 표기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가사내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디 25-32까지 8마디로 확장하여 호흡을 늘린 부분이 보인다. 베이스 음정을 살펴본다면 마디 21-24는 시퀀스로 이루어진 도약 음정인데 비해, 마디 25-32까지의 8마디는 4마디씩 나누어 보았을 때 베이스의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순차적이고 정적이다.

<악보-6> 제 1곡 C, 마디 29-32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29-32. The top staff is the vocal line, and the bottom staff is the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major/C minor). The tempo/mood is marked 'molto'.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piano (*p*) dynamic, followed by mezzo-forte (*mf*), forte (*f*), and ends with piano (*p*).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s with piano (*p*) and ends with forte (*f*). The lyrics are: "La Loire em - por-te mes pen-sé - es A-vec les voi - tures ver - sé - es". A diagram below the piano part shows the bass line with arrows indicating a modulation from C minor to A-flat major (Ab V).

마디 33-36를 보면 Et 부사가 나오며, 피아니시모로 시작하여 점점 조금 느리고 여리게(Céder un peu)라고 표기되어 있다. “슬픔을 겪고 있는데 전쟁은 계속 되고 우리의 눈물도 지워지지 않는다.” 라는 가사내용을 음악적으로 나타낸다. 마디 37-38에서 자신의 조국을 부르며 포르테, 크레센도 한 후, 바로 subito 피아니시모, 데크레센도, 페르마타(fermata)의 지시어를 지켜 극적인 슬픔과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표현해야한다. 마디 33-40에서는 마디 21-28에서의 8마디의 패턴이 한번 더 반복된 후, 마디 41에서 짧은 코다로 마무리된다. 코다 부분은 성악 멜로디 시작 부분과 가사가 일치하고 리듬형도 동일하나 멜로디와 화성이 극도로 불안하다. 그러나 마지막 마디 피아노에서 급작스러운 해결을 통해 평화를 드러내는 듯하다.

<악보-7> 제 1곡 C, 마디 33-41

33 **Céder un peu**
 Et les ar - mes dé - samor - ce - es Et les lar - mes mal ef - fa - cé es
 Gb; V7/V Eb; V7 E; V7/V V7

37 **Céder**
 O ma France, ô ma dé-lais-sé - e J'ai tra-ver-sé les ponts de Cé... **Céder encore**
 a Tempo **mf** **p subito** **pp molto portando** Tempo **mf** **p** **long**
 Eb; I 전조 **p subito** abm; C; J

췌(C)는 진행될수록 형식이 복잡하고 프레이즈가 확장된다. 또 명확하지 않은 조성과 형식, 이 모든게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참담한 전쟁 속에 피난가는 모습을 담기 위해 악보 전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빨랑은 많은 지시어를 악보에 표기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고 연주자는 지시어를 철저하게 지켜 노래해야한다.

1) 루이 아라공의 시, “Fêtes galantes”

On voit des marquis sur des bicyclettes	사람들은 자전거 탄 멋쟁이를 본다
On voit des marlous en cheval jupon	사람들은 승마복 입은 기둥서방을 본다
On voit des morvcux avec des voilettes	사람들은 베일을 쓴 잘난 체하는 아이를 본다
On voit des pompiers brûler les pompons	사람들은 소방관들이 술 장식을 태우는 것을 본다
On voit des mots jetés à la voirie	사람들은 도로에 버려진 말을 본다
On voit des mots élevés au pavois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방패의 말을 본다
On voit les pieds des enfants de Marie	사람들은 마리아 아이들의 발을 본다
On voit le dos des diseuses à voix	사람들은 크게 말하는 여자들의 등을 본다
On voit des voitur' à gazogène	사람들은 가스화 장치를 사용하는 마차들을 본다
On voit aussi des voitur' à bras	사람들은 일꾼이 모는 마차들을 본다
On voit des lascars que les longs nez gênent	사람들은 긴 코가 불편한 남자들을 본다
On voit des coïons de dix huit carats	사람들은 18캐럿을 본다
On voit ici ce que l'on voit ailleurs	사람들은 외딴 곳에서 본 것을 본다
On voit des demoiselles dévoyées	사람들은 신분이 타락한 여자들을 본다
On voit des voyous On voit des voyeurs	사람들은 변태와 불량소년들을 본다
On voit dous les ponts passer les noyés	사람들은 다리 아래 물에 잠긴 사람들을 본다
On voit chòmer les marchands de chaussures	사람들은 놀고 있는 신발 상인들을 본다
On voit mourir d'ennui les mireurs d'oeufs	사람들은 지겨워하는 게으름뱅이들을 본다
On voit périldliter les valeurs sûres	사람들은 몰락해가는 가치를 본다
Et fuir la vie à la six quat' deux.	그리고 달아나는 여러 사람들에 인생

2). Fêtes galantes

두 번째 곡 “화려한 잔치”(Fêtes galantes)는 전쟁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풍자하여 이 전 곡의 C와는 대조적인 느낌을 띤다. 이 곡은 형식을 나누는데 있어 의미가 크게 없으며 재잘거리는 느낌의 노래이다. 멜로디 보다는 가사와 리듬적인 표현이 주가 된다. 이 곡은 리듬이 피아노에서 엷박으로 빗겨가면서 강조되어진다. 음형관계도 비슷하게 반복적인 형태를 띠고 표현적인 것은 피아노에서 많이 나타나며, 오스티나토(ostinato)⁹⁰⁾들이 모여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형식은 A-B-A'-C-D로 이루어져 있고, 시는 4행씩 이루어져 총 5연이다.

가사는 “On voit(사람들은 -을 본다)”로 시작하여 단조로움과 강조가 동시에 일어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연주자는 표기되어 있는 대로 léger(가볍고 빠르게) 시작해야한다.

90) 오스티나토(ostinato) : 어떤 일정한 음형을 악곡 전체에 걸쳐 같은 성부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

<표3> 제 2곡의 “Fêtes galantes” 구조

형식		마디 (마디수)	박자	빠르기
A	a	2-3 (2)	4/4	♩ = 152
	a'	4-5 (2)		
B	b	6-9 (4)	13마디 3/4	
	b'	10-13 (4)		
A'	a''	14-15 (2)	4/4	
	c	16-19 (4)		
C	b''	20-23 (4)		
	d	24-26 (3)		
D	e	27-30 (4)		
	f	31-34 (4)		

전주는 한 마디로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는 짧은 전주로 시작되고, 조성은 F장조로 표기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음계와 화성이 등장하지 않는다. 마디 2-5는 이 곡의 A부분으로 멜로디가 짧은 음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마디가 시의 한 행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가사는 전쟁에서 피난 가는 사람들과 반대로 전쟁과 상관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marquis sur des bicyclettes*(자전거 위에 있는 멋쟁이들), *marlous en cheval jupon*(승마복 짧은 스커트를 입은 기부를), *morvcux avec des voilettes*(베일을 쓴 잘난 체하는 아이를), *pompiers brûler les pompons*(소방관들이 술 장식을 태우는 것을)등은 전쟁과 무관한 모습들이다.

A부분에 V도 중심으로 화성을 진행시킴으로써 생동감을 표현하였고, a'의 마디 5에서 A minor의 V-i가 등장한다. 반주부에 왼손을 보면 두개의 특징적인 음형 G-(C-D)-C-F-(C-E)-C-G-(C-D)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옥타브 차이를 두고 연결되며 C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오스티나토라 하는데 이 짧은 악구들은 이 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곡의 성격까지 결정짓게 하는 요소가 된다.

<악보-8>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1-5

A

Incrediblement vite, dans le sivil de chansons-scies de café-concert

1 *commeneer p*

CHANT

On voit des marquis sur des bicyclettes, On voit des marlous en cheval ju pon

PIANO

pp léger

$\text{♩} = 152 \text{ au moins}$

F Major

a'

4

On voit des mor veux avec des voilettes. On voit des pom piers brû ler les pompons

a minor

이제 (C-D)와 같은 음형은 1번 음형, C-F와 같이 옥타브 밑에서 나오는 음형을 2번 음형이라 칭하겠다.

B부분은 마디 6-13로 b+b'로 구성되어있다. A보다 길이가 두 배로 확장되며 A와 비교해 음가가 길어지고 두 마디 당 한행으로 이루어진다. subito 포르티시모로 시작되고 A부분과 대조적으로 선율적이지만 가사는 전쟁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mots jetés à la voirie(도로에 던져진 말을), mots élevés au pavois(높이 올라가는 방패의 말을), pieds des enfants de Marie (마리아 아이들의 발을), dos des diseuses à voix (소리 높여 말하는 여자들의 등을)등이 있다.

또한 선율적인 부분에서 조성이 같이 쓰이는데 V도 즉, C음 중심으로 이루어진 A와 비교해 C음이 한 옥타브 위로 표기됨으로써 F음의 역할이 강조되며, 1번 음형의 경우 좀 더 화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마디는 A minor의 V-i가 등장하며 통일감을 주지만, 이후 A'부분에 반주에 A음정이 나오는 것을 더 표현하기 위하여 13마디에 마무리를 A minor의 V-i로 끝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장된 길이로 인해 b와 b'에 모두 A minor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마무리는 이 곡에 조성적인 통일감뿐만 아니라 제 1곡 C와 연관성을 보여 지게 된다.

<악보-9>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6-13

6 *Bb* *ff subito* *ex'agérez la muette*

On voit des mots je - tés à la voi - ri - e On voit des mots é - le - vés au pa - vois

10 *b'* *(che vrotant)*

On voit les pieds des en fants de Ma-ri - e On voit le des des di-seu ses à-voix

a minor i

A'부분으로 a''+c 리듬의 변화가 미세하게 관찰되는 부분이다. 첫 형식인 A부분은 약박에서 특징적인 음형들이 등장해 긴장을 주는 한편, 마디 14부터 멜로디는 강박으로 정직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 a'' 부분의 역할이 정반대가 된다. 마디 14에서 못갓춘마디에 On voit가 나타나며 약박에서 새로운 행이 시작되는 형태가 나타남으로 변화를 주었고, 이것은 가사가 가지고 있는 뜻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On voit des voitures à gazogène(사람들은 가스화 장치를 사용하는 마차들을 본다) On voit aussi des voitures à bras(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일꾼이 모는 마차들을 본다) 이렇게 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음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못갓춘마디에 On voit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아노의 경우 약박 중심으로 특징적인 음형과 화성들이 진행되던 것이 강박에 붙게 된다. 또한 유려하게 진행되던 피아노에 A음정을 넣음으로써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 느낌을 주고 있다. (D-Bb)-A-A-(C-A)-A-A 이때 연주자는 subito 피아노(*p*)로 노래해야하며 반주는 페달 없이 정확한 리듬(rythmée sans pédale)을 가지고 연주해야한다.

c라는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는데 앞부분과의 통일감을 위해 C음을 중심으로 화성적 통일을 이루었고 종지 역시 A minor로 끝난다.

A-B-A' 를 보면 F major와 A minor가 혼합되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형식이 진행될수록 해당 조의 느낌을 더 살리고 있으며 당연히 A'에서 가장 해당 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화성적인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

<악보-10>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14-19

14 A'a''

p subito

On voit des voi tur' à ga - zo - gène On voit aus - si des voit ur' à bras

p subito

m.g.très rythmée sans pédale 라 라 라 라 라 라

16 C

f *mf* *porter*

On voit des lascars que les longs nez gé - nent On voit des co-ions de dix huit ca - rats

f *mf*

Ped. *Ped. * Ped. * Ped. *

F major a minor

마디 20-23는 마디 19에서 유지되어 오던 포르타멘토를 8분쉼표로 잘 끊어주며 생기 있고 활기차게 시작된다. C부분으로 b''+d 구조로 b의 테마를 사용하여 낮설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테마를 소개하기 전 익숙한 테마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A'에서 확인된 바 있다. 여기서 b''의 마디 3-4를 살펴보자면 두개의 음형으로 이루어졌던 1, 2번 음형이 더욱 극단적으로 쪼개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번 음형이 더 쪼개어져 한음씩 상행 반음계 진행을 하며, 2번 음형은 앞에서 그랬듯이 Eb 음정을 페달톤 효과로 짚고 있다.

<악보-11>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20-23

20 Cb''
 (guilleret) *mf* *molto* *f*
 On voit i-ci ce que l'on voit ailleurs... On voit des de moi-sel-les dé - vo - yé - es
p *mf*

C의 d부분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감7도의 연속적인 사용이다. 감7도는 단음정으로 이루어진 화성으로 긴장과 날카로움, 불안정함을 표현할 수 있다. 이때 b"에서 반음계적 상행으로 고조되던 악상이 마디 24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subito 피아노(p)로 표현되는 악상은 매우 극적이고 갑작스럽다. 또한 마디 25를 예비해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리고 마디 25에서 마디 22부터 이루어진 반음계 상행을 마무리하며 하행하게 되는데, 전부 감7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로 인해 조성 감각이 무뎌지며 전쟁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악보-12>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24-26

d
24 *ff gros* *poinlu (faussel)* *p subito* *mf* *f*
On voit des vo vous, On voit des voy eurs On voit sous les ponts passer les no - yés.
f sec *p subito* *mf* *f*

D부분으로 e+f구성되어있고, e는 반음계적 변화가 일어나는 짧은 악구가 중심이 되며 피아노의 경우 1+1+1+1로 이루어진 짧은 테마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프레이즈를 크게 하나로 묶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반음계적으로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다보면 조성이 모호해 질 수 있는데, 복잡한 피아노에 비해 멜로디는 단순히 C와 F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불안정한 피아노와는 달리 멜로디에서 F major의 I도와 V인 두 음을 중심으로 배치함으로 이 곡의 조성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Ab-Eb-E-(A-Bb)-F-E-(A-Ab), Ab-Eb-E-(Ab-A)-F-Fb-(A-Ab)

이 때의 가사는 On voit chòmer les marchands de chaussures(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신발 상인들을 본다) On voit mourir d'ennui les mireurs d'oeufs (사람들은 지겨워 시들시들한 게으름뱅이들을 본다)로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새로운 테마는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어진 다양한 오스티나토 음형이 변형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된다.

<악보-13>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27-30

De
27 *ff* très violent *très marqué*
On voit chò mer les mar - chands de chaus su - res

29

On voit mou - rir d'en - nui les mi - reurs d'oeufs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taves. The top staff is a vocal line in a single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It contains two measures of music with lyrics underneath. The first measure has a fermata over the final note. The second measure has a fermata over the final note. The middle and bottom staves are a piano accompaniment in a grand staff (treble and bass clefs)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piano par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with many beamed notes and slurs. There are two '8va' markings with dashed lines above the piano part, indicating octave transposition. Arrows at the bottom of the piano part point to specific measures.

마디 31-34, f의 경우 e보다 피아노 반주부의 호흡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마디 31-32, 두 마디에 걸쳐 반음계 상행진행을 함으로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인상을 준다.

오스티나토 음형이 e부분과 비교해 저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상행을 하는 출발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Bb-B-C-C#-D-Eb-E-F까지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G음을 찍는 순간은 다시 옥타브 아래로 내려간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옥타브 위에 있을 경우 배음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한마디를 지속하는데 있어 힘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G음 페달톤으로 사용되며 ii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브도미넌트(Sub Dominant)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서브도미넌트를 이 곡 전체를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곡의 조성감을 확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i-V-I 진행은 화성적으로 확실한 종지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곡의 조성이 드러난다.

<악보-14> 제 2곡 Fêtes galantes, 마디 31-34

31 *f* *sempre f* *f* *surtout sans ralentir* *mf* *p* *pp*

On voit pé-ri-cli-ter les val eurs sû - res Et fuir la vie à la six quat' deux.

Svb-Do V I
Domi Tonic

앞의 곡 세(C)와는 대조적으로 달라던 화려한 잔치(Fêtes galantes)는 재
잘거리는 노래로 전쟁의 아픔을 풍자하였다. 빨랑은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
을 극대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오스티나
토와 반음계적 진행, 5도 진행과 감7도 병행, 피아노 페달음사용과 성악의
멜로디와 피아노의 멜로디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극적으로 곡을 표현하였
다. 또한 극단적인 악상기호들과 리듬변화를 주었다.

Ⅲ. 결 론

프란시스 뿔랑의 모음곡 『두 개의 시(Deux Poèmes de Louis Aragon)』를 분석한 결과 시의 음악화가 충실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첫째, 두 개의 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조성과 화성으로 표현되었다. 첫 번째 곡 세(C)에서는 전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특정 발음이자 타이틀인 cé에서 서스펜션의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불안한 전시 상황을 나타낸다. 두 번째 곡 화려한 잔치(Fêtes galantes) 또한 전조는 곡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반음계와 감7도의 특징적인 사용으로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둘째,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음악적인 요소들은 피아노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피아노의 사용으로 다리를 건너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시퀀스를 통한 과거의 회상, 오스티나토를 사용한 특징적인 음형의 완성 등은 시의 음악적 표현을 위한 피아노의 적극적인 개입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뿔랑은 조성, 화성, 피아노, 음악기호 등을 명시하여 시의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곡가의 언어인 지시어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고자하는 의도가 지켜지기를 원했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이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20세기 작곡가 연구2』, 음악세계, 2004.
- 김강희, 형희전, 공누이. 『연주자를 위한 음악용어사전』, 뮤직트리, 2009.
- 김정태. 『파플러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 김춘미. 『서양음악문화사 강의』, 예종, 2005.
- 민은기. 『서양음악사2』, 음악세계, 2014.
- 세광출판사 편집위원회. 『최신명곡해설전집』, 세광출판사, 1983.
- 이석원. 『현대사회·현대문화·현대음악』, 도서출판 심설당, 2010.
- 이석원. 『현대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진성. 『프랑스 현대시』, 아카넷, 2008.
- 이종구.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 정복주, 채은희. 『성악예술 : 연주와 문헌』, 예술, 2009.

[번역서]

- 오카다 아케오, 이진주 역.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서양음악사』, 삼양미디어, 2009.
- Andre Breton, 황현산 역.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2012.
- Georges Sebbag, Le Surrealisme, 최정아 역. 『초현실주의』, 현대신서, 2005.
- Matthew Gale, 오진경 역. 『다다와 초현실주의』, 한길아트, 2001.
- Marcel Raymond, 김화영 역. 『프랑스 현대시사』, 현대문학, 2007.

Pierre Bernac, 심선화 역.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청림출판사, 2001.

[학위논문]

김현아. 『아라공의 Fou d'Elsa에 나타난 사랑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1993.

김이나. 『아라공의 시에 나타난 거울과 視線의 이미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2.

김윤경. 『플랑의 아라공의 두 개의 시에 붙인 ‘멜로디’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1.

안현주. 『아라공의 La Semaine Sainte에 나타난 위기의 시대와 그 극복의 모색 : 하나의 에피소드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2.

[외국서적]

Bernac, Pierre.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New York: W.W.Noton & Company, 1970.

[악보]

Françis Poulenc. 『Mélodies et chansons』, Salabert, Paris, 1989.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f Poulenc's 「Deux Poèmes de Louis Aragon」

Han, Ju Hee
Department of Music
Vocal Music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Deux Poèmes de Louis Aragon" composed by Francis Poulenc (1899-1963). "Deux Poèmes de Louis Aragon" which is one of Poulenc's the third period pieces consists of two songs, "C" and "Fêtes galantes". Poulenc composed this piece by borrowing the poems written by Louis Aragon (1897-1982) who was a French poet. The poems described contrastively who evacuated, and who lived their life regardless of the war during World War I. This piece expressed the contents of the poems musically by using tonality, harmony, form, tempo, and so on actively. This paper explored two poems used in "Deux Poèmes de Louis Aragon", Aragon who is a poet of "C" and "Fêtes galantes", the background of the poems and the Poulenc's piece, Poulenc's lifetime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songs subsequently. And also, I studied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Aragon's poems into Poulenc's piece. In addition, I fou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Neoclassicism and surrealism which represent the pieces in Poulenc and Aragon's era.

<부록> 프란시스 뽀랑의 가곡 목록⁹¹⁾

제 1시기 성악작품

작곡년도	곡명	시인
1917	Repsodie nègre(흑인의 랩소디)	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
1919	Le Bestiaire(동물 우화집)	
	1. Le doromadaire(낙타)	
	2. La Chèvre du Thibet(티벳염소)	
	3. La sauteerelle(메뚜기)	
	4. La dauphin(돌고래)	
	5. L'écrevisse(가재)	
1924-1925	6. La carpe(잉어)	Jean Cocteau (1899-1963)
	Cocardes(휘장)	
	1. Miel de Narbonne(나르본느의 꿀)	
	2. Bonne d'enfant(아이보는 하녀)	
1924-1925	3. Enfant de troupe(집단의 아이)	Poèmes de Ronsard (1524-1585)
	Poèmes de Ronsard(롱사르의 시모음)	
	1. Attributs(특징들)	
	2. Le tombeau(무덤)	
	3. Ballet(발레)	
	4. Je n'ai plus que les os (내겐 이제 뼈 밖에 없습니다.)	
5. A son page(그의 시동에게)		

제 2시기 성악작품

작곡년도	곡명	시인
1926	M Chansons gaillardes(쾌활한 춤곡의 노래) 1. La maîtresse volage (변덕스러운 여주인)	17세기 작가 미상

91) Pierre Bernac, 심선화 역.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청림출판사, 2001), 346-350.

	2. Chanson à boire(권주가) 3. Madrigal(목가) 4. Invocation aux Parques(운명의 기도) 5. Couplets bachiques(음주가) 6. L'offrande(봉헌) 7. La belle jeunesse(아름다운 것) 8. Sérénade(세레나데)	
1927	Vocalise(보칼리즈)	작가미상
1927-1928	Airs chantés(노래들) 1. Air romantique(낭만적인 노래) 2. Air champêtre(전원적인 노래) 3. Air grave(장중한 노래) 4. Air vif(격렬한 노래)	Jean Moréas (1856-1910)
1930	Építaphe(묘비명)	Francois de Malherbe (1555-1628)
1931	F Trois poèmes de Louise Lalanne (루이즈 라란느의 3개의 시) 1. Le présent(선물) 2. Chanson(노래) 3. Hier(어제)	Marie Laurencin (1885-1956)
	M Quatre poèmes(네개의 시) 1. L'anguille(뱀장어) 2. Carte postale(우편엽서) 3. Avant le cinéma(극장앞에서) 4. 1904(1904년)	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
	F Cinq Poèmes(다섯개의 시) 1. Chanson bretonne(브르통의 노래) 2. Le cimetièrre(묘지) 3. La petite servante(어린 하녀) 4. Berceuse(자장가) 5. Souric et Mouric(수리크와 모리크)	Max Jacob (1876-1944)
1934	Huit chansons Polonaises	작가 미상

	<p>(폴란드의 8개 노래)</p> <p>1. La couronne(화관)</p> <p>2. Le départ(출발)</p> <p>3. Les gare polonais(폴란드의 젊은이)</p> <p>4. Le dernier Mazour(마지막 마주르카)</p> <p>5. L'adieu(작별)</p> <p>6. Le drapeau blanc(흰 깃발)</p> <p>7. La Vistule(비스와 강)</p> <p>8. Le Lac(호수)</p>	
1935	<p>Cinq poèmes(다섯개의 시)</p> <p>1. Peut-il se reposer?(쉴 수 있을까?)</p> <p>2. Il la prend dans ses bras (그는 그녀를 포옹한다)</p> <p>3. Plume d'eau claire(맑은 물빛 깃털)</p> <p>4. Rôdeuse au front de verre (유리 앞에서 배회하는 여인)</p> <p>5. Amoureuses(사랑하는 여인들)</p>	<p>Paul Eluard (1895-1952)</p>
	<p>A sa guitare(그의 기타에)</p>	<p>Pierre de Ronsard (1524-1585)</p>

제 3시기 성악작품

작곡년도	곡 명	시 인
1937	<p>Tel jou telle nuit(어느 낮, 어느 밤)</p> <p>1. Bonne journée(즐거운 하루)</p> <p>2. Une ruine coquille perdu (비어있는 조가비 껍데기)</p> <p>3. Le front comme un drapeau perdu (잃어버린 깃발과 같은 이마)</p> <p>4. Une roulotte couverte en tuiles (타일로 뒤덮인 지붕이 있는 집시차)</p>	<p>Paul Eluard (1895-1952)</p>

	<p>5. A toutes brides(은 힘을 다해) 6. Une herbe pauvre(가련한 풀밭) 7. Je n'ai envie que de t'aimer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을 뿐) 8. Figue de force brûlante et farouche (불같이 야성적이고 힘있는 모습) 9. Nous avons fait la nuit (우리는 밤에 행하였다)</p>	
	<p>F Trois poèmes(세개의 시) 1. Le garçon de Liège(리에즈의 소년) 2. Au-delà(저편에) 3. Aux officiers de la Garde Blanche (백색 친위대의 장교들에게)</p>	<p>Louise de Vilmorin (1920-1972)</p>
1938	<p>Deux Poèmes(두개의 시) 1. Dans le jardin d'Anna (안나의 정원에서) 2. Allons, plus vite (좀 더 빨리 갑시다)</p>	<p>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p>
	<p>Miroirs brûlants(불타는 거울들) 1. Tu vois le feu du soir (나는 저녁 불빛을 본다) 2. Miroirs brûlants</p>	<p>Paul Eluard (1895-1952)</p>
	<p>Le portrait(초상화)</p>	<p>Gabrielle Colette (1873-1954)</p>
	<p>La grenouillère(개구리)</p>	<p>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p>
	<p>Priez pour paix(평화를 위한 기도)</p>	<p>Charles D'Orleans (1391-1465)</p>
	<p>Ce doux petit visage (부드럽고 작은얼굴)</p>	<p>Paul Eluard (1895-1952)</p>
	1939	<p>Bleuet(어린 군인)</p>

		Apollinaire (1880-1918)
	F Fiançailles pour rire(거짓 약혼녀) 1. La dame d'André(앙드레 부인) 2. Dans l'herbe(풀 속에서) 3. Il vole(그가 달아나다) 4. Mon cadavre est doux comme un gant (나의 시신은 장갑처럼 따뜻하다) 5. Violon(바이올린) 6. Fleurs(꽃들)	Louise de Vilmorin (1920-1972)
1940	Banalités(평범한 것들) 1. Chanson d'Orkenise(오르크니즈의 노래) 2. Hôtel(호텔) 3. Fagnes de Wallonie(발론의 늪) 4. Voyage à Paris(파리 여행) 5. Sanglots(오열)	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
	Les chemins de lamour(사랑의 길)	Jean Anouilh (1910-1987)
1942	M Chansons villageoises(촌민의 노래들) 1. Chanson du clair tamis (투명한 여과기의 노래) 2. Les gars qui vont à la fête (축제에 가는 사나이) 3. C'est le joli printemps (즐거운 봄이다) 4. Le mendiant(거지) 5. Chanson de la fille frivole (경박한 소녀의 노래) 6. Le retour du sergent(하사의 귀환)	Maurice Fombeure (1906-1981)
1943	Métamorphoses(변신) 1. Reine des mouettes(갈매기의 여왕) 2. C'est ainsi que tu es	Louise de Vilmorin (1920-1972)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3. Paganini(파가니니)	
	Deux Poèmes(두개의 시) 1. C(썰) 2. Fêtes galantes(홀륭한 축제) Montparnasse(몽파르나스)	Louis Aragon (1897-1982)
1945	Hyde Park(하이드 공원)	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

제 4시기 성악작품

작곡년도	곡명	시인
1946	Le Pont(교량)	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
	Un poème(시)	
	Paul et Virginie(폴과 버지니아)	Raymond Radiguet (1903-1923)
1947	Mais mourir(그러나 죽다)	Paul Eluard (1895-1952)
	Hymne(찬가)	Jean Racine (1639-1699)
	Trois chansons de Garcia Lorca (세개의 노래) 1. L'enfant muet(말없는 아이) 2. A delina à la promenade (산책하는 아멜리나) 3. Chanson de l'oranger sec (시들은 오렌지나무의 노래)	Gracia Loca (1898-1936)
	Le disparu(실종자)	Robert Desnos (1900-1945)
	Main dominée par le coeur (마음으로부터 지배된 손)	Paul Eluard (1895-1952)
1948	Calligrammes(상형시집)	Gaillaume

	1. L'espionne(여간첩) 2. Mutation(변화) 3. Vers le Sud(남쪽으로) 4. Il pleut(비가 내린다) 5. La grâce exilée(추방된 은총) 6. Aussi bien que les cigales(매미들처럼) 7. Voyage(여행)	Apollinaire (1880-1918)
1949	Mazurka(마주르카)	Louise de Vilmorin (1920-1972)
1950	La Fraîcheur et le Feu(냉기와 열기) 1. Rayon de yeux...(두 눈과 태양...) 2. Le matin les branches attisent... (아침에 나뭇가지들이...) 3. Tout disparut...(모든 것이 지붕처럼...) 4. Dans les ténèbres du jardin... (정원의 어둠속에서...) 5. Unis la fraîcheur et le feu... (냉기와 불을 결합하라...) 6. Homme au sourire tendre...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7. La grande rivière qui va... (태양 아래에서는 거대하고...)	Paul Eluard (1895-1952)
1954	Parisiana(파리식으로) 1. Jouer du bugle(뿃글 나팔 연주하기) 2. Vous n'écrivez plus? (당신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나요?)	Max Jacob (1976-1944)
	Rosemonde(장미의 세계)	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
1956	Le travail du peintre(화가의 작업) 1. Pablo Picasso(파블로 피카소) 2. Marc Chagall(마르크 샤갈)	Paul Eluard (1895-1952)

	3. Georges Braque(조지스 브라크) 4. Juan Gris(후앙 그리) 5. Paul Klee(폴 그리) 6. Joan Miro(호안 미로) 7. Jacques Villon(나끄 비용)	
	Deux mélodies 1956(1956년 2개의 멜로디) 1. La souris(생쥐) 2. Nuage(구름)	1. Gaillaume Apollinaire (1880-1918) 2. Laurence de Beylié (1893-1968)
	Deux poème(2개의 시)	Robert Desnos (1900-1945)
1958	Une chanson de porcelaine (도자기의 노래)	Paul Eluard (1895-1952)

제 5 기 성악작품

작곡년도	곡명	시인
1960	F La courte paille(짧은 밀짚) 1. Le sommeil(잠) 2. Quelle aventure(이상한 모험) 3. La reine de cœur(마음의 여왕) 4. Ba, be, bi, bo, bu(바베비보부) 5. Les anges musiciens(음악천사들) 6. Le carafon(작은 물병) 7. Lune d'Avril(4월의 달)	Maurice Careme (1899-1977)

<voice type 지정>

특별히 표시되지 않은 곡은 양쪽에 적합한 곡이다.

M - 남성을 위한 곡, **F** - 여성을 위한 곡.